

## 상실된 유년기의 복권 폴리세니 파파페트루

미래는 불확실하고 현재는 너무나도 가깝다. 과거만이 유령처럼 기억 속에 흔적으로 남아서 유령처럼 부유한다. 갤러리 선 컨템포러리에서 열린 〈Alice's Mirror〉(2009.8.4~25)의 세 작가 줄리아 플러튼 바턴Julia Fullerton-Batten, 루비자 링보르그Lovisa Ringborg, 폴리세니 파파페트루Polixeni Papapetrou는 모두가 겪었으나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과거와 기억이라는 소재를 사진을 통해 그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그 매개는 성인 이전의 불안전한 신체와 그 정체성이다.



〈Alice's Mirror〉에 초대받은 세 작가는 모두 지난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에 참여한 바 있다. 그중 폴리세니 파파페트루는 서울국제사진페스티벌이 열린 겨울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호주 출신인 폴리세니 파파페트루는 호주의 자연 풍경의 배경에서 아이들을 주제로 작업한다. 이를 통해 과거의 상실을 되돌아보고, 어린 아이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Haunted Country》는 이민 온 유럽인 아이들이 광활한 호주의 들판과 사막에서 길을 잃고 실종되거나 다시 돌아온 실제 역사적 사건들 또는 실종된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 재구성한 작품이다. 역사적 사실들을 토대로, 길을 잃은 아이라는 은유를 통해 폴리세니 파파페트루는 아이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호주에서의 유럽인의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사는 땅, 자연과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한다. 작가가 어린 시절 하던 놀이와 기억을 재구성한 《Games of Consequence》는 놀이라는 소재를 통해 경계가 지어지지 않은 아이들의 세계를 표현함과 동시에 과보호로 자연과 괴리된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폴리세니 파파페트루는 모두가 겪은 시절이지만 아련하게 기억에 남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유년기를 '이해'하고자 한다.

### 서울국제포토페스티벌에 이어 두 번째 방한이다. 지난 전시에서 작품을 인상 깊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 반갑다.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특히, 작업의 주 모델이기도 한 딸 올림피아가 지난번 방문에서 한국 문화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쁘다.

### 원래 직업이 변호사였다고 들었는데, 사진 작가로서는 독특한 배경이다.

변호사였을 때, 나는 매우 열심히 일했지만,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삶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작가를 만나서 사진에 관심을 둔 것이 처음 계기가 되어 변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 당신의 작업에서는 호주의 자연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떻게 아외 활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1960년대에 많은 사람이 호주에 이민을 왔다. 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그리스 커뮤니티에서 자랐다. 그래서 호주의 풍경과는 항상 거리감이 있었다. 그런데 2003년 뉴욕을 방문했을 때, 늘어선 고층빌딩들을 보고 있으려니 어느 순간 호주의 땅에, 풍경에 끌리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제야 내가 호주인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호주의 풍경에 매혹되었다. 호주의 오지는 매우 독특하다. 모든 것이 섞여 있고, 정돈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언제나 예쁘거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때때로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그 기가 강하다. 원주민들은 땅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이러한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 이번 전시에서는 두 시리즈를 전시하고 있다.

먼저, 《Hauted Country》는 2006년에 제작한 시리즈로, 19세기 호주의 오지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기초한다. 실제 장소들을 가보고 기록들을 조사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길을 잃은 아이들이 되는 느낌이 어떤지 상상해 보고 싶었다. 호주에는 오지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 대한 역사적 서술들이 남아 있다. 호주에 이민 온 유럽 사람들에게 호주의 자연은 절대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다. 호주의 자연 풍경에는 특별히 눈에 띠는 랜드 마크가 없기에 사람들은 종종 길을 잃곤 했다. 하지만, 원주민들에게는 호주의 자연이 집이자 고향이었기에 그들은 길을 잃는 경우가 없다. 호주의 자연은 이민자들을 절대 환영하는 곳이 아니다. 길을 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는 이민자들과 호주의 땅이 가지는 관계를 이해해 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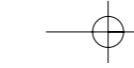
《Games of Consequence》시리즈는 2008년에 제작한 근작으로, 자연 환경 안에서 놀던 내 유년기의 기억에 기반을 둔다. 요즘의 아이들이 시는 삶은 과보호로 매우 제한된다. 그들은 과거처럼 땅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 못한다. 이 시리즈에서는 내가 아이일 때 했던 놀이와 게임들을 호주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재구성하였다.

호주에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지만, 호주를 방문한 친구들이 호주 사람들은 모두 즐겁고 느긋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당신의 작품은 외부 사람들에게 느끼는 호주에 대한 인상과 달리 그러한 표면 아래에 잠재된 무의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호주에 사는 유럽 사람들, 이민자들의 역사를 보여 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역사를 좋아한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문화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한때 있었던, 우리가 향수를 가지는 세계를 그려 내고 싶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많은 향수를 있다. 그리고 향수는 상실로부터 온다. 호주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상실이 있었다. 문화가 그려하며, 어린 아이들은 자유를 잃었다. 표면적으로 호주는 느긋하고 편안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밑에는 많은 상실과 결여가 존재한다.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그리고 이민자들은 이민자들대로 원주민들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했기에 많은 것을 잃었다.

### 작업의 주제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다. 초기에는 보디빌더나 의상과 관련한 작업들이 많았다.

내 작업은 언제나 정체성의 표현과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것이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의상에 관심이 많았다. 보디빌더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만들었으며, 몸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정체성의 표현은 내 작업에서 계속 이어지는 주제이다. 다만, 그 대상이 바뀐다.



Polixeni Papapetrou, Daylesford 1867 #2, Pigment Ink Print, 85×85cm, 2006



Polixeni Papapetrou, Witness 1933, Pigment Ink Print, 85×85cm, 2006





Polixeni Papapetrou, The Fall, Pigment Ink Print, 85×85cm, 2008



Polixeni Papapetrou, Wild World, Pigment Ink Print, 85×85cm, 2008

그렇다면 현재 작업에서 어린 아이를 주제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신비로운 존재들이다. 나는 우리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어린 아이라는 상징을 하나의 은유로써 사용했다. 지금 하는 새 작업《Between Worlds》는 호주의 풍경을 배경으로 통틀 가면을 쓴 아이들이 등장한다. 이기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아이'라는 존재의 특별한 위치,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을 지나 왔고 항상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다. 아이들은 그러한 상징성을 지닌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과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어린 시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Games of Consequences》의 경우, 어린 시절의 놀이를 반영했다고 했지만, 아이들은 활동적이지 않고, 분위기는 위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아외이 면서도 배경이 어두운 작품들이 눈에 띠는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는 느낌이다.

유년기의 놀이들은 위험적일 수도 있다. 한계선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놀이가 심해지면, 누군가가 울기 시작할 수도 있고,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선을 넘으면 놀이는 더는 재밌을 수 없다. 그러한 유년기의 기억을 전달하고 싶었다. 어두운 배경은 성장이 가지는 어두운 양상과 같다. 성장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순간들이 존재한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어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작업은 강한 내러티브적 요소를 가진다. 내러티브가 사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관객들은 이야기에 반응한다. 내러티브가 있을 때, 사람들은 각기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내러티브의 느낌은 작품에 좀 더 많은 차원을 부여한다. 한 가지 단서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The Fall'을 보면,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The Fall'과 같은 경우가 유년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낸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자, 다른 친구들이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던 그때,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를 'fall from grace'라고 표현한다.

당신의 딸 올림피아가 작업에서 계속해서 등장한다. 올림피아가 당신의 페르 소나라고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일을 항상 도와야 했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요즘 아이들이 가지는 유년기는 나에게 없었다. 학교 공부와 집안일을 돋는 것에 치여 전혀 그려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되어서야 『이상한 나라의 앤디스』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읽는 순간 빠져들었다. 나는 그 환상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느낌이 어떨지 상상하고 싶었다.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통해 유년기를 이해하고 알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올림피아가 5살 때부터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작업은 가면과 의상에 관한 것이었다. 올림피아에게는 엄마와 함께 노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올림피아도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작업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함께 참여한다.

루이스 캐럴의 사진 작업을 따른 『Dream Child』 시리즈는 그 주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가. 보통 작업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19세기 당시 루이스 캐럴의 사진 작업은 당시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1920년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 전까지 아이들에게는 세黝얼리티가 존재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루이스 캐럴이 아이들을 촬영한 것은 절대 성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합한 문맥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박사 논문도 관련된 주제였다. 자연과 아이들은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다. 특히, 호주에서는 호주의 풍경과 아이들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가 없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호주에서 아이들을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자신의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작가와 부모 모두 많은 서류를 작성하고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통과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작년에 빌 헨슨 Bill Henson의 작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다. 모든 허가를 받은 나도 연루가 되었는데, 올림피아가 방송에 나와서 작업에 대한 강한 변호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곤 한다.

최근 작업들은 모두 아외 촬영인데, 보통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스튜디오에서처럼 제어할 수 없기에 아외 촬영은 힘든 작업이다. 먼저, 위치를 살펴보고 담사를 다녀오고서 작업 구상을 한다. 의상과 정하고, 아이들과 스케줄을 맞춰야 한다. 만약 날씨가 나쁘면 모든 것을

취소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촬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애외에서 아이들을 다루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보통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이미지가 보이면 멈춰 달라고 부탁하고 촬영을 한다. 모든 조건에 들어맞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 과정은 쉽지 않다. 조명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끔 사용한다. 주로 큰 반사판으로 자연광을 모아 이용한다. 카메라는 핫셀블라드를 사용하고, 필름만으로 촬영한다. 네거티브 필름을 스캔하여 색 보정을 할 때만 디지털 작업이 들어갈 뿐, 그 외에는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는다. 내 머릿속에 있는 장면이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그 이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진 작업을 할 때의 신체적, 물질적인 경험들이 좋다.

#### 앞으로의 전시 계획이 궁금하다.

11월에는 멜버른에서, 그리고 5월에는 파리에서, 이어서 시드니와 뉴욕에서의 전시 계획이 잡혀 있다. 3월에는 호주 빅토리아에서 미술관 전시가 계획되어 있다.

#### 젊은 작가들에게 조언한다면.

일단 카메라를 집어 들고 사진을 계속해서 찍어야. 계속하다 보면 당신의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찾은 주제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관해서 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작품을 보고, 그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보라. 하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작업해야 한다. 그 과정 중에, 사진을 만들고 찍는 그 과정 중에 당신의 주제가 보일 것이다. PN

구에나기자



폴리세니 파파세트루 Polixeni Papapetrou

멜버른 대생으로 현재 멜버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범호시로 활동을 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 사진 작가가 되었다. 1990년대부터 많은 전시들에 참가하였으며, 2002년 스페인 아르코ARCO의 호주 시전전에서부터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서울국제시진페스티벌에 초청받아 전시와 아티스트 토크에 참여한 바 있으며, 〈Alice's Mirror〉전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다. 2007년에는 어퍼처Aperture 재단의 55주년 기념전에 초청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polixenipapapetrou.net